

# 懸賞設計 競技에 따르는 問題点과 우리 建築士의 자세

金 熙 春

建築 懸賞設計 경기에는 建築主, 建築士(応募者) 및 審査委員의 三者가 참가하여 이루어지는데 各者の 問題点 및 자세를 各各 나누어서 생각하기로 한다.

## 1. 建築主

建築主가 設計競技에 建築物을 回付하고자 할 때에는 建築物에 對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Programing이 먼저 세워져야 하겠다.

이 Programing이 없이는 建築主의 意思가 充分히 応募者(建築士)에게 反映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객관 타당성이 있는 Programing을 세우는데는 建築物의 目的, 규모등을 定하고 地의 여러가지 狀況, 建築法과의 관계等 모든 條件을 제시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爲해서는 경험있고 有能한 建築家에게 이 Programing을 위탁하여 応募者에게 回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은 建築主의 審査委員 위촉문제이다. 審査委員은 建築主가 設計競技를 回付하고자 할 때 함께 發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審査委員을 미리 發表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고매한 人格의 所有者를 審査委員으로 선정한다면 야기되는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審査委員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審査委員들로 하여금 建築主가 설계경기에 回付한 建築物에 對한 充分한 研究가 이루어져서 応募者의 作品에 對한 심사가 훌륭히 이루어질 것이다.

## 2. 建築士(応募者)

우선 応募 要件을 잘 이해하여 건축주가 의도하는 바를 充分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다. 建築主의 意圖를 充分히 理解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질의를 하던가 적절한 方法을 통하여 확인을 하여 作品製作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혹 간에는 要求條件과 제작내용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어쨌든 応募要件을 준수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또한 作品 제작은 실시가능한 案을 제작하여야 하겠다. 展示의 効果에만 치중한 나머지 構造, 材料, 設備 等の 면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그 案의 현실적인 實施可能性 여부를 의심케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作品의 表現方法에 있어서 모든 事項은 圖面으로 說明하되 간결하고 명료하게 表示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야 하겠다. 文字로서의 說明은 不可避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審査時 理解把握이 困難하여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 審査委員

심사위원은 설계경기에 처하여 심사위원 자신이 応募할 정도로 充分한 研究를 하고 試驗的인 計劃을 해 보아서 실제 내용에 대하여 応募者 이상의 파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설계경기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채점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內包하고 있다. 일정한 채점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단지 合算결과에 의존하여 작품의 우열을 평가하게 되는 것은 非合理的이며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길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채점심사제도보다는 작품을 공개토론하여 充分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뒤 작품의 우열을 가리는 方法이 더욱 合理的인 方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公開討論 심사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一定한 채점기준을 만들어 일관성있게 우열을 가리는 方法을 채택하는 것이 설계경기 채점에 있어서 合理的이고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심사위원의 專功分野에 관한 문제이다.

建築設計競技에 있어서 작품제작은 대체로 기본계획까지를 그 한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경기 심사위원의 전공분야는 건축계획분야가 가장 합리적이다. 특히 채점심사제도의 경우에는 계획전공의 심사위원이 주가되고 다른 分野(구조, 설비...等)의 심사위원은 副의 立場에 서는 区分이 없을 경우 서로 다른 觀點과 相異한 채점기준에 의거한 채점결과의 合算은 非合理的으로 돼버리고 말 것이다.